

내고장 일꾼



허석 순천시장은 2일 오후 5시 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 지역구 전라남도 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송귀곤 고흥군수는 2일 오전 8시 30분 군청 팔영산홀에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주재 간담회의를 갖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2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49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고흥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고흥군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4일부터 2개월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여행'을 매주 토요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운영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초등학교를 포함, 청소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기수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견학, 2기수는 '뮤지컬 보물섬' 관람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과정은 공연관람예절과 감상기법, 직접체험과 관람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특히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소양 및 문화참여 확대, 공연관람의 이해력을 돕는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비 1,3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1기수는 3일까지, 2기수는 24일까지 추가 모집을 받고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문화예술과 (061-830-6716)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진중언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 사 010-4601-5323
- 여 수 010-8648-1236
- 광 양 010-3622-9898
- 순 천 010-2547-7890
- 구 례 010-5431-4006
- 곡 성 010-6764-6100
- 고 흥 010-9151-2828
- 보 성 010-4633-1790

8월의 순천 '3색 문화 예술 행사' 풍성

한 여름밤의 낭만이 가득한 8월, 순천이 풍성한 문화와 예술 행사로 물든다.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줄 문화재 밤마실이자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장이 될 '순천문화재 야행'을 시작으로 여름날의 추억을 선사할 '제6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 정원과 클래식 공연이 어우러져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2018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가 순천에서 펼쳐진다.

순천의 풍광을 판소리로 엮은 순천가와 함께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달빛과 함께 찾아가 보는 순천문화재 야행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문

문화재 야행·세계동물영화제·국제교향악축제 등 지속가능 시민행복·문화생활 향유의장 자리 기대

화의 거리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문화재 야행은 '순천가와 함께 하는 풍류기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선암사 승선교 조형물을 설치해 순천가의 한 대목에 언급된 승선교의 가치 복원과 지난 6월말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암사 등재에 대한 축하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해피 애니멀, 함께 행복

한 세상을 테마로 한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순천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순천시 일대에서 개최되는 동물영화제는 자연과 동물, 사람이 영화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공존의 페스티벌이다.

개막행사는 1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동물영화제 홍보대사인 가수

겸 배우인 구하라씨가 참여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윤도현 밴드의 축하공연이 개막 열기를 더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리틀포레스트 감독으로 유명한 임순례 감독의 씨네토코와 동물복지 관련 다큐 감독인 황윤 특별전 등이 펼쳐지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화 읽어주는 번사 등 이색 프로그램도 준비중에 있다.

8월의 순천을 마지막으로 장식할 2018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4일간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유아 마이 스타'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프리마돈나 조수미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60년 전통의 세계 최정상 이탈리아 실내악단 이무지치, 마에스트로 금난새, 첼리스트 송영훈, 트럼페티스트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파페라 그룹 컨템포디보와 시립예술단 및 지역음악가, 국내최정상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나흘간 순천을 음악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최될 순천시 문화예술행사가 지속가능한 시민 행복프로그램과 문화생활 향유의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광양 도심속 어린이 물놀이장 인기

이들간 1,400명 방문...가족 휴식 공간 자리 매김

광양시가 최근 마동 근린공원에서 운영하는 '도심속 어린이 물놀이장'에 이틀간 1,400여 명의 시민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운영된 '도심속 어린이 물놀이장'은 계곡 등에 물놀이를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광양시는 마동근린공원의 바닥분수와 물놀이풀 3면, 워터슬라이드 2면을 설치하고 의무실과 탈의실, 휴식쉼터, 수유실 등을 갖춰 가족과 함께 물놀이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물놀이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여름철 폭염대비 3대 건강수칙과 물놀이 안전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광양소방서와 함께 소화기 작동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김형찬 안전총괄과장은 "올해는 짧은 장마와 긴 폭염으로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도심속 어린이 물놀이장이 시민들에게 잠깐이나마 무더위를 식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정경화 기자



광양시 마동 근린공원 '도심속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수 옛 기차길 공원에 자전거 대여소 설치

여수시는 전라선 옛 기차길 공원에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소를 설치한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라선 옛 기차길 공원 내 미평공원과 오림 내동마을 입구, 만흥공원 등 3곳에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소 막바지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소 이용은 이달 중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용 가능 대수는 총 40대다.

여수시는 개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원 내 일반 자전거 보관대도 4곳 설치 중이다.

또 옛 기차길 공원 잔여구간인 둔덕동 주민센터-덕양역(8.4km) 구간이 10월 개통하면 이 구간에도 무인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여수시의 공영자전거는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7월 현재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수 전라선 옛 기차길 공원에 설치될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소.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소는 시청 민원실 등 27곳이며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250여 건이다. 지난 한 해 이용 건수는 7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공영자전거가 근거리 이동과 여가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수 곳곳을 자전거로 돌아볼 수 있도록 무인대여소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구례 동해마을 통학 거리 단축된다

순천교육청에 통학구역 변경 건의... "적극 검토" 답변

구례군 문척면 동해마을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단축된다.

문척면은 최근 순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동해마을 학생들이 현재 10km 떨어진 순천 황전초등학교에서 집 근처에 있는 문척초등학교로 내년부턴 진학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 변경 건의를 전달했다.

섬진강변 사삼암 아래 위치한 동

해마을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당초 마을에서 1.5km 거리의 순천시 황전초등학교 용립분교장이었으나 학생 수 감소로 용립분교장이 폐교되면서 10km 떨어진 황전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이 변경됐다.

그동안 동해마을 학생들은 4km 거리에 문척초등학교가 있음에도 원거리인 황전초등학교를 가야 하는 불편

함이 있었다. 이에 문척면장과 동해마을 이장은 순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마을에서 가까운 문척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거쳐 2019학년부터는 문척초등학교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진석 기자

보성 윗나무 클러스터 공모 선정

50억 규모...연간 8,612명 일자리 창출 기대

보성군은 최근 산림청이 주관한 50억 규모의 윗나무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윗나무 클러스터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벌교읍 일원 공유림 100ha를 활용해 윗나무를 지속 생산

하는 사업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윗나무 클러스터 사업이 윗나무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통합적 생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연간 8,612명의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선상희 기자

클릭! 고향 소식



고흥 '사랑의 집짓기' 준공

고흥군은 지난 달 31일 포두면 평촌마을 '사랑의 집짓기' 준공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김수금 할머니 가족에게 전달했다.

김할머니 가정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10대 소녀와 50대 아버지, 80대 노모가 한방에서 생활해 도움이 손길이 절실했다.

이번 사랑의 집짓기는 전남도 현장행정 우수사례평가 최우수상에서 확보한 사업비 2,000만원과 목지가의 후원금 등으로 탄생됐다. /고흥=진중언 기자



광양 여름방학 영어캠프 시작

광양시는 최근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 초·중학생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6박 7일간 일정으로 인진영어마을에서 '영어캠프'를 시작했다.

이번 영어캠프는 초등, 중등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우선 초등학교생 70명이 5일까지, 중학생 70명은 6일부터 12일까지 참여한다.

한편 광양시는 2013년부터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정경화 기자



여수 지역자율방재단 재구성

여수시 소라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최근 면 회의실에서 조직 재구성을 마치고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소라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주민자치위원장과 이장, 부녀회원, 건설업 종사자 주민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방재단은 태풍과 홍수,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경보 전파, 주민대피 유도 등 민간차원 재난대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수=곽재영 기자



화순 무더위쉼터 방문 애로 청취

화순군은 최근 어르신들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내평경로당과 수동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화순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무더위 쉼터의 운영 현황과 불편사항들을 점검하고 폭염 행동요령을 홍보했다.

김경호 부군수는 "폭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수공급과 구급함 배부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서효경 기자